

# 15개 은행 신행회 공공기관 불자회

# 'IMF 동면'

## 정기법회 참여 저조...이웃돕기등 행사 취소

연초부터 계속된 경제불황으로 활동이 위축되어 온 직장법회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에 계기로 더욱 얼어붙었다. 이미 구조조정으로 김원·김봉위에 힘입어 기업법회에서는 물론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우이) 산하 15개 은행불교회도 금융위기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청와대불교신행회(회장 박세일)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병이) 등 공공기관

불자회도 대선정국의 혼미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 제일·서울은행을 비롯 8개 금융권 불교회는 정기법회를 맞달까 중단하고 있으며, 한국·조흥·외환·한일·농협·금융결제원 등 정기법회를 지속하고 있는 은행불교회도 법회 참석인원이 예년의 절반이하로 폭 떨어졌다. 지난 6일 산업은행불교회(회장 이형관) 창립 9주년법회에서 주최한 정기법회 참석자가 60명(전체참석인

원은 3백명)에 불과했던 것도 당일 불거진 한라그룹 고려증권 등의 연체부도 때문이었다. 또 서울은행불교회(회장 이무재)가 13일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치른 것도 사내 분위기가 답답한 탓. 하지만 은행불교회는 그나마 나은 편. 가이중공업법회와 삼미특수강직장법회와 쌍용그룹불교회 현대엔지니어링불교연구회 등 기업불자회는 이미 연초부터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지하철법회

회 한국전력남야회 등 공기업 불자회도 크게 고전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태현)의 경우, 11일 예정이던 창립6주년 기념법회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13일 청주 고산사 사찰 순례로 전환할 정도. 한국전력반야회 이경호 사무국장은 "어려운 때 일수록 자신을 되돌아 보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차분한 신행이 필요하다"면서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법회를 봉행한다는 원력만 있다면 오히려 신행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 "'장기이식본부' 민간운영 마땅" 생명나눔회등 종교계 장기운동단체 주장

'장기이식관리본부'를 민간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장기이식을 총괄할 '장기이식본부'를 공공단체라는 이유로 적실자리에 운영을 맡기려는 데 대해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 사령의 장기이식본부(박진택목사)등의 종교계 장기이식운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선것.

생명나눔실천회 박완순실장은 "전문성과 헌신성이 결여된 공공단체보다는 약간의 시설과 인력보장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생명나눔실천회와 사령의 장기이식운동본부는 10일부터 장기이식관리본부의 민간단체운영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 군법당 감사제도 '논란'

조계종 포교원 차원 [군순단] 자체 추진

일선 군법당에 대한 감사기능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순단(단장 이희용) 자정 움직임과 관련해 불거진 이 문제는 11월 25일 열린 군순단 결산총회에서 소장법사들의 견의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와관련 포교원이 군법당 재정 감사제도와 상벌 규정을 내용으로 한 군포교 시행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군순단측과 합의해 올해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군순단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규정상 외부에서 군법당을 감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제도를 보완한 자체 감사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5일 열린 군순단 대의원 회의에서는 대의원들의 인준을 거

쳐 신임 운영위원들이 확정됐다. 운영위원은 △수석부단장 정선진(종합 행정학교) △해군부단장 정인호(해군교육사 총국사) △공군부단장 김재철(공군본부 군종감실) 법사들이 각각 선임됐다.



제24차 어린이 지지도자 연수회가 6·7일 경주 조선회관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에 세상이 모두 얼어붙었다. 그러나 불자들의 마음까지는 얼어붙지 않았다. 22일 민속명절 동지를 맞아 전국의 각 사람을 비롯 신행단체에서는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자비행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제5회 작은설 동지문화제를 봉행한다. 22일 육화전에서 무사고 안전기원 법회를 열고 22일에는 양로원 노인정 군부대 소년들의 집중에 팔죽을 보시한다. 이어 부천 북부역과 송내역 광

## 동짓날 '한파 녹이는 팔죽'

석왕사등 불우이웃에 퍼덕...불자면 성금전달

장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를 펼친다. 특히 석왕사의 동지문화제는 팔죽보시행을 통해 절과 나눔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어 심각한 경제난에 귀감이 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20일 동지기도를 시작으로 26일까지 동지포덕행사를 펼친다. 21일은 사천왕사와 방생선원에서 철야정진을 하며 평화통일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또한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26일 강의실에서 제7회 동지포덕

## 뉴스 & 뉴스

### 경제난국 실천지침 마련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분사주지모임(회장 설조)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실천운동지침을 마련했다. 분사주지모임은 11일 유성에서 15명의 주지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중단과 구구본사의 재정긴축 △불사 자체 △해의 성지순례 자제 △수입품 불전 율리치 않기 △교단 총무원의 급료 10% 저축독려 등 실천운동과 '경제살리기 한 통장 갖기운동'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또 분사 주지모임은 이회향후보는 '과계승달' 홍보물과 관련 응분의 조치를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 경제살리기 불교인 결의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13일 부산역 광장에서 나라경제살리기 불교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각 사찰신도와 신행단체 등에서 3백여 불자들이 동참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산품 애용, 과소비극단, 해외여행자제 등을 결의하고 불우이웃돕기 외국돈 모금행사에 가졌다.

### 화지문화회관 봉사단 발족

조계종이 위탁 운영하는 화지문화회관(관장 신운재)이 8일 청소년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금정중학교와 해동중학교 불교반 학생 2백30여명이 주축이 돼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화지문화관 일대를 청소하는 것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 조순총재 초청 조찬회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회장 성오·범어사 주지)는 8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한나라당 조순총재 초청, 조찬회를 가졌다. 이영구 불교부산방송 총괄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조찬회에는 1시간30분여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성오스님을 비롯 회회 부회장 해충스님(갈문사 주지) 덕수(삼광사 주지) 홍교(前 범어사 주지)스님 등 1백여 스님과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 권익현 정각동우회회장 명호근 대불이사장 허문도 前 통일원장관 등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 "노인목욕차 운행" 연꽃마을 마포센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는 1월부터 중풍이나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동목욕서비스는 특수목욕조를 갖춘 이동목욕차를 이용, 마포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가정에서 직접방문하여 목욕을 돕는다. (02)365-3677

## 경주 신선사 마애불보호각 '허술'

## 비울땀 바위에 녹물...맑은날도 황토 얼룩

경주 단석산 신선사 상인암 마애불상군(국보199호)이 당국의 허술한 보수관리로 훼손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94년 풍우에 마모되는 마애불상군을 보호하기 위해 2억원을 들여 유리자판으로 된 보호각을 설치했으나 이로인해 빗물이 고이고 바위벽면에 녹물이 스며드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보호각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황토물이 흘러내려 얼룩무늬가 생기는 등 훼손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10월2일부터 6천9백20만원을 들여 마애불

상군 바위윗면에 폭 1m, 길이 50cm~1m, 깊이 10여cm의 배수로 공사를 시작했다. 바위윗면에 헤머드릴 등으로 불성사남계 파헤쳐지고 있어 또다시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951년부터 주석한 주지 용담스님은 "공사전에는 비가 올때만 문제가 될 뿐 비가 그치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허술한 보수공사로 예안이 낭비되고 문화재는 이중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내년 1월29일까지 배수로 공사를 끝낼 예정이다. <경주=이윤호 기자>

## 공명선거 종교인선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스님)는 8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그릴에서 승년대회모임을 갖고 '15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한 종교인선

언'을 발표했다. 대화모임에 참석한 4대종교 성직자 30여명은 종교인선언문을 통해 "15대 대선을 앞두고 변화와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고 전제하며 "변화의 흐름속에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낙후된 정치권의 일신을 가져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자"고 말했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마감하는 즈음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다.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나온 복장유물이 도난사고를 우려, 1년 2개월여동안 파출소 무기고에 보관돼 왔다는 것이다. 오죽 도난에 마음이 쓰였으면 성보를 파출소 무기고에까지 보관했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귀중한 성보가 총, 탄환 등과 함께 있는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 문화재관리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산골벽지에 있는 작은 사찰이 어떻게 성보를 보존관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해당 사찰뿐 아니라 종단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울해만도 기림사 노사나불 복장유물을 비롯

총 10건 15점의 성보가 각 사찰에서 도난당했다. 작은 입자는 물론 은해사나 쌍계사같은 교구본사에까지 도난의 손길이 뻗치고 있지만 정부나 종단은 그저 속수무책일 뿐이다. 종헌

종법에도 엄연히 명시돼 있는 성보유실의 책임에 대해 아무런 재재조치가 없다. 아무리 귀중한 성

보를 잃어버려도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소임자를 찾기 힘들고 책임을 묻는 일도 철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난사고는 꼬리를 몰고 일어난다. 특수전문범죄라 할 수 있는 문화재범죄에 대해 마약단속반과 같은 전담반도 꾸리지 못하고

올해는 대형 과불탱화의 국보, 보물지정이 많았지만 과불도 크다는 이유만으로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찰들은 단지 과불함에 넣거나 돌돌 말아 대웅전 등에 놓아 둔 뿐이다. 성보문화재의 1차 소유자는 당해사찰이다. 스님들은 말로는 '성보(聖寶)'라고 하지만 그에 걸맞은 보존관리가 과연 이뤄지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각 사찰 임의대로 성보를 관리하는 것을 중단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IMF의 한파가 거센 지금, 정부의 문화정책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불교계가 성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임을 자임한다면 세심하고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정부의 문화정책에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무탁소

운기석 <취재2부 기자>

## 푸대접 받는 성보

보를 잃어버려도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소임자를 찾기 힘들고 책임을 묻는 일도 철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난사고는 꼬리를 몰고 일어난다. 특수전문범죄라 할 수 있는 문화재범죄에 대해 마약단속반과 같은 전담반도 꾸리지 못하고

#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香妃)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쉼(寧靜)은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언약의 텃중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 모형의 원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ic)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킵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장부족(伸腸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무너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한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야말로 기미가 생기게 된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 초 프랑스의 비료 화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딱딱하다.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뼛다.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15.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6. 변비가 있다.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